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임의 폐업시 경찰 고발”

유치원 공공성 강화 교육장회의

원아 분산배치해야 폐원 가능
원아모집 중단해도 행정 처분
현장지원단 급파 등 모니터링
4년 동안 공립 190교 신·증설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는 전담반을 구성해 유치원이 휴원이나 폐원 문의를 하거나 신청할 경우 이를 일일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당국은 위기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유치원의 모집 보류나 폐원 등 학습권 침해 우려 시에는 시 관할청이 현장지원단을 급파해 유치원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한편 인근 시설을 확보해 유아 배치 지원에 나선다.

◆‘모집 보류·중단’, ‘임의 폐업 위기’ 1~3 단계 대응 매뉴얼 가동

유치원 학습권 위기 상황은 크게 ▲모집 보류·중단 위기시 ▲임의 폐업 위기시로 분류해 각 1~3단계, 1~2단계로 나눠 조치하도록 했다. 모집 보류·중단 위기나 임의 폐업 위기 1단계에는 현장지원단이 행정지도하고, 모집 보류·중단 위기 2단계에서는 시정명령을, 3단계에서는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을 한다.

상황이 급박한 임의 폐업 위기 2단계는 폐원신청시와 임의 폐업시로 나뉘, 폐원 신청의 경우는 유아 전원을 분산 배치 완

료를 조건으로 조건부 인가를 하지만, 임의 폐업시에는 경찰고발을 통해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유총 등 사립유치원 단체가 유치원의 집단 휴원·모집 정지 등 집행행동을 강제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고 공정위 조사 등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조직적·단체적으로, 지역 전체적으로 왜곡 정보를 흘리고 원아 모집연기를 시도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불법 행동의 경우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포함한 법인에 대해서도 실태 검사와 지도 감독을 바로 실시하겠다”고 경고했다.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을 폐원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타당해야 하고 적절한 유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또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유아지원(배치) 계획을 수립한 후 폐원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관할 유치원 폐원 현황을 보면, 지난 7일을 기준으로 올해 모두 27개 유치원이 폐원했다. 이는 지난 2016년(20곳), 2017년(18곳)과 비교

해 50% 가량 증가한 것이다.

지난달 10월 22일 이후 폐원을 예고한 유치원은 18곳으로, 폐원사유는 대부분 ‘경영 악화’나 ‘건강 악화’가 많다. 이들 유치원 원생은 총 1321명으로 유치원 폐원 시 이들의 배치 계획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9년~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190교(790학급) 신·증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각 교육지원청별 내년에 최소 4개 학급 이상씩, 2022년까지 4년간 190교(790학급)의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해 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조기 달성을 계획이다.

연도별로 2019년 36교(151학급), 2020년 39교(159학급), 2021년 48교(263학급), 2022년 67교(217학급)다. 확대되는 공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유치원 40개원(280학급)을 포함해 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 자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등 다양한 방식의 모델이 도입된다. 또 유휴교실이 있는 초등학교나 신설되는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병설유치원이 설치되고, 단설유치원이 설치되지 않은 영등포·도봉·종로·용산·마포·광진·강북구 7개 자치구와 학교이적지에 설립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수능 막바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8일 오전 서울 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초중고 예술교육, 지역사회와 함께 만든다

교육부 ‘예술교육진흥법’ 제정 추진 내년 ‘예술이음학교’ 지정해 운영

초·중·고교의 예술교육을 보편교육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사에 대한 맞춤형 예술교육 연수가 진행되고, 학교가 지역 예술지원을 활용하는 ‘예술이음학교’가 시범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예술교육진흥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예술교육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교 예술교육 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해 기존의 예산지원 위주 정책에서 교육문화와 지역사회 협력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취지를 담았다.

교육부는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보편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 가치 실현 ▲지속·자생적 학교 예술 교육 지원 ▲학교-지역사회 예술교육 연계 지원 ▲공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 체계 마련으로 잡았다.

우선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지난달 26일 서울 상암동 YTN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2018 예술꽃 씨앗학교 10주년 기념 콘퍼런스 : 경험과 성찰, 새로운 모색’에서 경기 이천 단월초등학교 학생들이 초청무대로 뮤지컬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에 이르기까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예술교육을 내실있게 받도록 교사, 학교 관리자, 교육전문직 등 대상별 맞춤형 교원 연수를 진행한다.

초·중등교사에 대한 연수는 수업기획력, 진로진학지도 역량, 실기 역량 등에 초점을 맞추고, 학교 관리자에 대해서는 예술적 체험과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식이다.

/한용수 기자

“실제 수능 시간표 맞춰 대비하라”

메트로가 콕 짚는 대입전략

㉙ 수능 D-6 마무리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은 6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지금부터는 실제 수능을 치르는 기분으로 수능 당일 시간표에 맞춰 학습하고 생활하면서 필요한 정도에서 수능 최종 리허설을 한다. 예를 들어 1교시 시작 시간인 8시 40분에 맞추어 국어 영역 시험을 보고, 2교시 10시 30분 수학, 점심 먹고 3교시 영어 영역 시험 시간인 오후 1시 10분에 맞추어 듣기 연습 등을 할 수가 있다.

영역별로 최종 정리할 때, 새로운 것을 배운다기보다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부족한 부문이 있을 때는 해당 내용만 가볍게 확인하도록 한다.

2019 수능은 6월, 9월 모의 수능과 평가원의 출제 방침에서 확인됐듯이 전반적인 나이도는 평이하면서 일부 문항은 변별력 있게 출제될 예정이다.

따라서, 수준별로 상위권에서는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푸는 것’과 함께 영역별로 일정한 정도의 변별력을 가지려는



오종운 종로학원
하늘교육 평가이사

문항에 대해 선별적으로 대비한다.
탐구 영역도 과목 별로 1, 2 등급 달

성은 1~2문제에서 결정난다고 보고 난이도 있는 문제에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본다.

중위권에서는 쉬운 난이도의 문제는 정확하게 맞추고, 약간의 변별력을 가지는 문항에 대해 도전해 고득점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한다.

하위권은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다룬다는 것보다는 아는 단원 및 문제부터 해결하고 탐구 영역도 1과목만은 집중적으로 대비하도록 한다.

EBS 연계 교재에 대한 마무리 학습은 영역별로 공통인 〈수능특강〉, 〈수능완성〉 등을 자신이 평소 학습한 정도 범주에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다.

수능 예비 소집일(14일)에는 소속 학교에서 수험표를 교부받은 후 주의사항을

전달받고 자신이 응시할 시험장 및 시험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단 입실은 불가하다).

만일,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관리본부에 신고(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하고 수험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 본인의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한다. 시험 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담배 등)은 시험장에 가져와서는 안되고, 만일 반입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미폐출시 부정행위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후 되돌려 받아야 한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에 대한 종류 및 관리절차를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왼쪽부터) 세종대 체육학과 육혜민(1학년), 송혜린(2학년), 김연정(4학년), 이연종(1학년), 남진술(3학년) 학생이 동메달 획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세종대학교

작년 2017 타이페이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단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출전함에 이어, 이번 2018 아시안컵에서 메달 획득에 성공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리듬체조 명문대학의 위상을 높였다.

배덕효 총장은 “우수한 선수들을 더욱 양성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